

# SNU, 인권현장 속으로 2020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 단체 소개문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장애여성공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

진실의 힘

언론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정책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0학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2층 사단법인 피난처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www.pnan.org">www.pnan.org</a> (피난처)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난민 법률지원 (난민인정절차 조력 및 권리보호)</li> <li>- 국제 난민 생활지원 의료, 심리상담, 취업, 숙소, 공동체 개발 등)</li> <li>-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펀딩 : 고문피해난민지원</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이주양, 김진수
	전화번호	02-871-5382
	이 메 일	pnan02@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p>활동#1) 난민지원 관련 통번역 활동(프랑스어, 아랍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과의 법률, 생활, 취업 지원 면담 시 통역</li> <li>- 난민 박해상황 관련정보 번역</li> </ul>	
	<p>활동#2) 난민 본국정황 및 난민관련 판례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사건 지원을 위해 COI(Country of Origin Information)조사</li> <li>- 난민인정과 관련된 국내외 판례 조사</li> </ul>	
	<p>활동#3) 난민지원 관련 디자인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관련 자료 및 홍보물 등에 들어갈 디자인 작업</li> </ul>	
	<p>활동#4) 난민지원 관련 홍보 활동 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처 SNS 관리: 새 글 작성 및 게시 등</li> <li>- 피난처의 정보 공유 작업 조력</li> </ul>	
	<p>활동#5) 난민 생활지원 관련 통역 및 외부동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생계비 및 의료지원 면담시 통역</li> <li>- 난민 심리상담 및 아동 프로그램 관련 통역</li> </ul>	
	<p>활동#6) 난민 생활지원 관련 통역 활동 (프랑스어, 아랍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생계비 및 의료지원 면담시 통역</li> <li>- 난민 심리상담 및 아동 프로그램 관련 통역</li> <li>- 난민 외부기관 방문 동행</li> </ul>	

<b>자원활동 요건</b>	공통 (활동#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및 국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li> <li>- 나이 제한 없음</li> <li>- 기독교 가치관에 거부감이 없는 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무관)</li> </ul>
	활동#1) -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 구사에 능한 분	
	활동#2) - 영-한, 한-영 번역에 능한 분 - 국제정치·사회 및 법률에 관심 있는 분	
	활동#3) - 디자인 작업 가능한 분	
	활동#4) - SNS 활용, 글쓰기, 편집 등을 좋아하는 분	
	활동#5) - 아동과 심리상담에 관심 있는 분 - 영어 및 외국어 구사에 능한 분 우대	
	활동#6) -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 구사에 능한 분	
<b>활동 요일 및 시간</b>	활동#1~6) - 활동 횟수 : 주 1회 이상 - 시간 : 09:00~17:30 중 협의 후 결정 - 요일 : 월~금요일 중 협의 후 결정	
<b>요청 인원</b>	활동#1) 각 언어별 1명	
	활동#2~6) 각 1명	
<b>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b>	활동#1~6) 자원활동 첫 날 30분~1시간 이내	
<b>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b>	활동 전 신청자와의 면담 있음: 면담 후 활동 여부 등 결정 단체 양식에 따라 자원활동신청서 추가 작성 필요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2019.07.02.: 오리엔테이션/ 인권을 주제로 리서치  
2019.07.09.: 인권과 난민 주제로 리서치  
2019.07.16.: 호주 난민 수용 사례/ 가족 결합 사례 리서치  
2019.07.23.: 호주 난민 수용 사례/ 가족 결합 사례 리서치  
2019.08.06.: 난민 셀프 헬프 키트(SHK) 회의 참석, 한국어 수업 진행  
2019.08.13.: SHK 회의 참석  
2019.08.27.: SHK 내용 정리 / SHK 템플릿 초안  
2019.09.04.: 기타 정리  
2019.09.09.: 네덜란드와 영국 이민정책/난민 절차 자료 조사  
2019.09.16.: 난민 인테이크/ 보건소 동행  
2019.09.30.: 스페인 이민정책 /난민 절차 자료 조사  
2019.10.07.: 그리스/이탈리아 이민정책/난민 절차 자료  
2019.11.04.: 회의, 뉴질랜드 판례 색인 정리  
2019.11.11.: 뉴질랜드 판례 색인 정리, 자활센터 동행(통역..?)  
2019.11.18.: 2월 난민 방문 기록 정리  
2019.12.16.: 줄리아 프로젝트(SHK) 멘트 정리  
2019.12.24.: 기타 정리

### 2. 활동소감

올해 한 활동 중에 가장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피난처에는 간사님들과 인턴이 함께 일하는데, 간사님들께서 업무를 배당하셨는데 처음 갔을 때와 중간중간 업무는 대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말씀드리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난민 문제에 관심이 생겨 지원을 했지만 난민들을 직접 대면하기에 언어적 장벽이 크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리서치 업무 중심으로 자원했고 이를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배우는 일도 많았고, 많은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해서 재밌었습니다. 관련 실무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살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인테이크를 하게 됐는데, 그 날 인테이크를 하면서 동행하면서 일단 제가 너무 재밌었고 난민분들과 직접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일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정으로 정기적으로 가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매주 가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점심시간에 당번을 맡아서 점심을 만들고 함께 먹는데 그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일하는 다양한 분들과 교류한 점도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피난처는 기독교 기반의 기구지만 활동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4 (경기대로 11길 14-4) 3층	
홈페이지 주소	www.khis.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국적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li> <li>- 해외진출 한국기업 모니터링</li> <li>- 국가인권위원회 감시</li> <li>-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문제 국내 소개 및 연대</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나현필
	전화번호	02-736-5808
	이메일	khis21@hanmail.net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국제민주연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 번역/조사/연구를 주로 수행하되, 캠페인과 세미나 등에도 참여함</b></p> <p>특히 코로나 19사태 이후에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공급망에서의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국제적 인권문제의 동향과 대응 및 한국 정부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역할을 직접 고민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코로나 19사태 진정여부에 따라 한국에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각종 인권관련 국제행사와 회의준비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보임</p>	
자원활동 요건	특별히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가져온 분이면 좋겠습니다.	
활동 요일 및 시간	가급적 주당 4시간 이상을 사무실에 나와서 자원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구체적인 요일 및 시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요청 인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자원활동가 활동 첫날 사무실에서 실시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특별히 없습니다.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민주연대’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국제민주연대에서 국내외 인권 침해 사태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를 영역 또는 한역하여 외국 또는 국내에 알리는 일과, 국제 인권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 진행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

해외 인권침해사태에 관해서는 2019년 4월 군부 쿠데타로 수단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수단 군부의 민간 시위 강경 진압으로 인해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고 수단 군부가 야권과 권력 분할에 관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또한 2019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새로운 형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처지게 되고, 반부패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에 알리는데 도왔다. 또한 8월 23일 국내에서 진행된 <로힝야 피해생존자 보호와 학살책임자 처벌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행사 진행을 도왔다. 또한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시위에 관련하여 한국 대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에 사태를 알리기도 하였다.

국내 인권침해사태에 관해서는 2019년 6월 24일 있었던 <유엔 농민과 농어촌노동자 권리선언 포럼 발족식 및 실천전략 토론회>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행사 진행을 도왔고, 김용희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인권위원회 기자회견자료를 영어로 번역했으며, 삼성 해외사업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인권적 관행에 대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의 논평을 영어로 번역했다.

가장 중요했던 업무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 행동 규범에 의해 설치된 NCP(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련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국NCP 운영전반에 대하여 동료평가(Peer Review)가 진행되었는데, 동료평가 설문 답변 초안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 2. 활동소감

해외 인권침해사태를 조사하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인권침해사태가 국내에 많이 안 알려졌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책임을 다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인권침해사태가 많이 알려질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반인권적 관행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치명적이며,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강제력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국제민주연대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였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 행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었다.

<2020년 신규 참여단체> ※신규 단체의 경우, 작년 참여학생 후기가 없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srhr.kr">http://srhr.kr</a>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중지 지원, 소수자 친화적인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의료기관-지원기관-당사자 연결 네트워크 구축, 의료 정보와 성 건강 관련 자료 제작 및 배포</li> <li>-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장하는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li> <li>-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 연구</li> <li>-해외 진료, 상담, 교육, 법정책 관련 사례 연구 및 자료 번역</li> <li>-국제연대</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나영
	전화번호	010-5468-0518
	이 메 일	<a href="mailto:share.srhr@gmail.com">share.srhr@gmail.com</a>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건강, 성교육, 성과 재생산 관련 법정책에 관련된 해외 자료 번역</li> <li>-단체 주요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li> </u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정책, 성교육,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 보건의료 공공성 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li> <li>-영어, 스페인어, 그 외 제2외국어 번역이 가능하신 분</li> <li>-간단한 카드뉴스, 웹 홍보물 디자인 작업이나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화요일~금요일 중 하루 오후 1시-6시	
요청 인원	1-2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활동을 시작하는 첫 날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자원활동가의 관심 분야와 단체의 활동 영역, 지향 등을 사전에 조율해 볼 수 있도록 사전면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자원활동 No.2 : [난민건강검진] 코디네이터

1) 활동목적

: 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의료봉사팀과 함께 2017년부터 전남 광주, 인천, 서울 지역에서 무료건강검진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5 회차를 맞이한 이번 검진행사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2) 활동내용

: 통역봉사자 관리, 통역봉사자 사전교육 및 난민건강검진행사 진행 지원, 단체 블로그 및 SNS 포스팅



▶ 자원활동 No.3 : [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도서관] 코디네이터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1) 활동목적

: [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도서관]은 난민이 사람책(human book)이 되어 자신을 대출한 독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공간입니다. 텍스트로서 존재하는 “난민“과 ”인권“의 개념을 넘어서 난민과 한국 시민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접촉면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초청(사람책 대출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도서관“의 형태로 운영되며 한 권의 사람책은 통역봉사자 1명과 함께 독자들을 만납니다.

2) 활동내용

: 사람책도서관 홍보(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 사람책 일정 관리(대출 관리), 통역봉사자 연계, 단체 블로그 및 SNS 포스팅



<p>자원활동 요건</p>	<p>▶ 자원활동 No.1 : <u>[난민뉴스팀] 코디네이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li> <li>- 뉴스 콘텐츠 온라인 리서치 및 유관단체 전화 문의가 가능한 분</li> <li>- 웹자보 제작 가능한 분 (canva 등)</li> </ul> <p>▶ 자원활동 No.2 : <u>[난민건강검진] 코디네이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li> <li>- 통역봉사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li> </ul> <p>▶ 자원활동 No.3 : <u>[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도서관] 코디네이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한국 선주민“의 직접적인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li> <li>- 영어 구사가 가능한 분</li> </ul>
<p>활동 요일 및 시간</p>	<p>※ 활동 분야에 따라 활동 진행장소 및 요일, 활동시간이 상이합니다. 리서치, 번역, 홍보물 제작 등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분야는 자원활동가와의 일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p> <p>▶ 자원활동 No.1 : <u>[난민뉴스팀] 코디네이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금요일, 주1회, 6시간</li> </ul> <p>▶ 자원활동 No.2 : <u>[난민건강검진] 코디네이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금요일, 주1회, 6시간</li> </ul> <p>▶ 자원활동 No.3 : <u>[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도서관] 코디네이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금요일, 주1회, 6시간</li> </ul>
<p>요청 인원</p>	<p>▶ 자원활동 No.1 : <u>[난민뉴스팀] 코디네이터 - 1명</u></p> <p>▶ 자원활동 No.2 : <u>[난민건강검진] 코디네이터 - 1명</u></p> <p>▶ 자원활동 No.3 : <u>[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도서관] 코디네이터 - 1명</u></p>
<p>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p>	<p>활동이 시작되는 첫 주에 단체 이해 및 활동 소개를 위한 자원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짜 미정)</p>
<p>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p>	<p>자원활동가의 관심분야와 실제 참여활동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 진행을 희망합니다.</p>

2020년 05월 06일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에서 저는 ‘사람책 도서관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습니다. ‘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 도서관’이란 난민이 한 권의 ‘사람책(human book)’이 되어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젝트로, 난민인정자 및 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난민 인권운동가의 양성을 목표로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종교단체 등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16번의 사람책 도서관이 열렸고, 저는 각각의 행사를 위한 사람책의 일정 관리 및 통역봉사자 연계를 주된 업무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난민과 통역봉사자에게 연락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간혹 난민은 통역가에 대한 불만을, 통역가는 통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모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이해를 갖춘 통역가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람책들의 통역을 위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또 다른 주요 업무는 사람책 도서관의 홍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연락드려 학내에서 사람책 도서관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교육청과 공공도서관에 사람책 도서관 관련 홍보물을 발송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2019 민주시민교육 배움 전국 공유회’에 초대를 받아 난민 두 분의 이야기를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교사 분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남양주 호평중학교, 순천 왕지초등학교, 성남 구미중학교 등에서 난민과 학생들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책 도서관들에서 독자 분들께서 남겨주신 메시지(‘평화카드’)는 수합하여 기록 및 홍보를 위한 사이트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 <https://sites.google.com/view/human-library-with-refugees>)

이 외에도 난민 지원을 위한 각종 문서 번역과 외부 행사 지원, MAP의 SNS 관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MAP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한 <청년과 난민> 토크콘서트에서는 행사 준비 및 기록, SNS 홍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유엔난민기구 (UNHCR)에 제출할 보고서를 위한 증빙자료 정리 및 참고자료 작성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사람책 도서관



2019 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 2. 활동소감

저는 2019년 하반기에 가장 잘한 선택이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MAP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3'을 통해 피난처에서 난민 싱글맘들과 원데이클래스를 기획해본 이후, 난민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 MAP을 알게 되었고, MAP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던 사람책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난민들을 만나고,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사회와 나누는 것을 도우며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때면 꼭 찬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초반 MAP에서 활동할 때에는 제게 예상 외로 큰 작업들을 맡기셔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고, 처음 해보는 일들이기에 실수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MAP은 한 학기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제가 제대로 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봉사자가 아니라 난민 분야에 관한 역량을 갖춘 활동가가 되어볼 기회를 주셨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기획안 작성, 대규모 행사 조율, 공공기관 대상 홍보 등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AP의 스텝 분들은 제가 절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더 많은 일들을 맡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MAP이 한국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MAP과 MAP이 하는 일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MAP은 난민을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닌 협력하는 '동반자'로 여기고 한국사회가 그들을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학기 동안 이러한 MAP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세 학기 동안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번 학기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권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거나 어떠한 사명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 특히 젊은 학생들 - 이 이러한 경험을 해보고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권의 중요성과 난민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신 MAP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신규 참여단체> ※신규 단체의 경우, 작년 참여학생 후기가 없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아디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410호(창건빌딩)	
홈페이지 주소	www.adians.net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HING야난민 집단학살 기록사업</li> <li>- 로HING야기록사업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li> <li>- 로HING야난민여성 심리사회 지원활동</li> <li>- 팔레스타인 여성지원센터 사업</li> <li>- 미얀마 메이크틸라 평화도서관 사업</li> <li>- 회원/후원자 소모임 활동</li> <li>- 로HING야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 시민네트워크 사업</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이동화
	전화번호	010-9947-9920
	이 메 일	asiandignity2016@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디의 다양한 현지활동을 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에 홍보 지원</li> <li>- 현지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조사 및 아카이브</li> <li>- 팔레스타인 여성지원센터 업무지원</li> <li>- 하반기 아디 행사 및 모임 참석</li> <li>- 아디 사무업무 지원</li> </u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활동에 대한 관심과 소수자와 난민에 대한 공감 있으신 분</li> <li>- SNS활동을 즐기시는 분</li> <li>- 영문자료 검색 및 정리 가능하신 분</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주 중 1일, 4시간 이상, 시간과 요일은 조정 가능(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아요)	
요청 인원	1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활동 시작하는 첫 주 전체 오티 예정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 언론인권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55, 208호 (중앙서초프라자)	
홈페이지 주소	www.presswatch.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 언론의 허위 보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미디어이용자의 권익보호운동을 목표로 창립함.</p> <p>○ 주요활동은 현재 15명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보도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민.형사 소송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언론사 종사자를 상대로 언론보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출판 사업을 하고 있음.</p> <p>○ 언론인권센터는 이와 함께 언론인권시민교육, 청소년미디어캠프, 미디어모니터팀 운영, 언론 심포지엄 및 포럼 주최, 성명 및 공개질의서 발표, 언론 및 인권 관계법률 제.개정 활동 등 시민들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언론권이라는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p>	
자원활동 담당자	이 름	윤여진
	전화번호	010-3226-3872
	이 메 일	presswatch.korea@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미디어인권교육 지원</li> <li>- 북한관련 프로그램 모니터 참여</li> <li>- 유튜브 모니터 프로그램 참여</li> <li>- 언론인권센터 홍보작업</li> <li>- 미디어관련 토론회 홍보 및 정리</li> <li>- 언론관련기관 정보공개청구 업무 및 분석 참여</li> <li>- 기타 활동</li> </ul>	
자원활동 요건	<p>시민권 및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 언론 및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 알권리, 언론윤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p>	
활동 요일 및 시간	참가자와 조율	
요청 인원	3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참가자와 조율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널리즘 교육, 언론 보도 피해자를 위한 소송 업무, 미디어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여러 팀이 구성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노동 인권 보도 모니터링팀에 합류하여 약 3개월 간 국내 언론사의 기사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노동인권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언론사 모니터링이란 핵심 주제를 다룬 기사들을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수집된 표본의 경향성을 도출하는 동시에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활동입니다. 이번 학기에 언론인권센터에서 선정한 주제는 ‘노동 인권’이었습니다. 산업재해, 노동조합 결성과 해체, 각종 파업 등 노동 관련 이슈가 연일 언론에서 소개되나 해당 기사들이 건강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의 가치와 개념이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으므로, ‘노동 인권’이라는 주제에 보다 다양한 논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최저임금제도’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팀원 분들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보도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율과 무관하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들이 상당수 발표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제도의 사회 보장적 의의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경제적 효과만을 편향적으로 다룬 언론들의 논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저희 팀 외의 다른 구성원들은 각각 ‘노동 혐오 표현 양산’, ‘파업 보도’, ‘노동 쟁의 보도’ 등을 주제로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격주 목요일마다 언론인권센터 사무실에 모여 각 팀이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공유했고, 이로써 제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주제까지도 폭넓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발제문을 함께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 인권의 의의와 언론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간 언론인권센터의 노동보도 모니터링팀에 소속되어 토론회 및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국내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기사에 사용된 세세한 표현까지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인권과 노동 인권의 분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2. 활동소감

인권단체 연계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기대했던 바는 ‘인권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넓히고, 누구에게든 구체적으로 도움을 보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목표의 절반은 실현했고, 절반은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언론인권센터에서의 경험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장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파업과 쟁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일 언론에 소개되는 산업 재해

등에 불편한 마음만 갖고 있던 제게 노동인권 보도 모니터링은 노동과 언론의 불가분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던 프레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팀원들과 토론을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인권이 기업 혹은 경제 성장과의 대척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오인 받는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언론 뿐 아니라 효율성과 성장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조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맥락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제도가 낯선 비판의 대상이 되기 매우 쉬울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갖게 된 문제의식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해야 비로소 현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답답함 역시 커졌습니다.

제 목표가 절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답답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또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낳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오랜 기간을 거쳐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게 지난 6개월을 거쳐 나타난 변화를 타인에게도 경험하게 만들고 싶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권단체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 다른 학우 분들 역시 비슷한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결코 언론인권센터의 내부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센터의 이사님과 사무차장님 등 저희 활동을 주관하셨던 분들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돕고 싶어하셨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대학생으로서 인권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을 느끼게 되어, 향후 노동 인권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 인권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402호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www.humanpolicy.com">http://www.humanpolicy.com</a>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는 인권정책 전문 민간연구소로서, 인권거버넌스 연구, 인권 정책 관련 토론회,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계발 및 진행, 인권교육전문강사 양성, 인권교육 매뉴얼 번역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p> <p>이러한 인권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강미선 사무국장
	전화번호	02. 2633. 0336
	이 메 일	humanpolicy@naver.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자료 번역 작업</li> <li>- 공무원 인권교육 업무지원 등</li> <li>- 인권분야 연구지원</li> <li>- 그 외 연구소 업무지원 등</li> </u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1일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9:30-5:30)</li> <li>-인권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li> <li>-외국어 번역 가능하신 분</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p>-활동 요일, 시간 등을 지원자와 협의 가능합니다. (점심 및 소정의 교통비 지급합니다)</p>	
요청 인원	6명 (연구분야 3명, 교육분야 3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2020년 7월 초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6개월간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하신 분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7월부터 2학기 종강까지 일주일에 한 번 9시반에 출근하여 오후 5시반에 퇴근하였습니다.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에는 한 주씩 빠질 수 있게 양해해주셨습니다.

본래 자원활동 지원할 때 참고한 연구소 자원 활동가 담당업무 설명에는 1) 인권정책 연구 담당 2) 인권교육 보조 담당 둘로 나뉘었는데, 실제 활동은 그때그때 연구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정책연구소의 사업은 크게 인권 관련 공공기관 연구 용역 사업과 공무원 인권교육이 있고 제가 활동한 기간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남도, 부산시 연구 용역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매우 바쁜 시기여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연구 보조 업무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선생님들이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과 인권정책의 당사자성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 그룹 면접한 내용(FGI)의 녹취를 해제하였고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던 12월에는 연구 보고서 오탈자 검수를 하였습니다. (연구 계약 및 연구소 지침 상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FGI 녹취를 듣고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어떠한지를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 보조가 급하지 않을 때에는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 강의 스텝으로 외근을 나가기도 했고 인권교육 평가 설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의 경우 제가 듣고 싶어 하면 스텝으로 보내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저는 총 3번 강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활동소감

인권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인권 담론이 지자체 행정과 거버넌스의 영역 안에 제도화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학생회 활동을 하며 직접 공론화에 참여하였고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문제시 되는 여러 인권 관련 이슈들을 보면 개별 이슈들이 하나의 불쏘시개에 끝나지 않을까, 개별 이슈들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실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정책연구소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소위 ‘인권감수성’이 제도와 규범으로 정착되는 것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충분한 보람을 가져도 된다는 느낌을 비롯 느끼지만 조금씩 공적 업무의 장애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원활동 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행정 기관과 직접 협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 인권 제도 및 규범의 실효성 확보 방안부터 실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실적 고민들까지 바로 옆에서 들어볼 수 있어 신선했습니다. 공공 기관에 취직하여 인권 업무를 봐보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자원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아왔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터라 잘 알지 못했고 알기를 소홀히 하였던 지방 자치단체의 인권 제도와 인권 이슈 현황에 대해 FGI 녹취 해제 업무를 하며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인터뷰와 탈북민 정착 업무 담당자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과 행정의 특성 상 필연적으로 정책 대상자를 표준화하여 정책 설계를 하는 것 사이에 여러 고민이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서도 인권 전문가인 교육자와 행정 전문가인 피교육자, 교육 대행기관과 지자체 간에 관점 차가 존재함을 듣게 되어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과제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책을 요구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인권정책 담당자가 인권의식을 갖고 업무에 열의를 보이는 것이 간절한 단계이긴 하지만, 인권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 영역의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열정에 기대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권 행정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권정책연구소 업무 특성 상 본인이 한 자원활동을 그대로 기록하여 발표하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나 직접 사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 동기를 가지신 분께 추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인권의 제도화에 관심이 있거나 인권 부문의 거버넌스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께는 최적의 자원활동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업무가 매우 많고 바쁜 연구소였지만 연구소에 계셨던 선생님들 모두 매우 친절하셨고 저의 인권운동 경험에 대해 존중해주시며 선생님들과 인권 주류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종종 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학기 중에 15학점을 들으며 일주일에 한 번 풀타임 근무하는 루틴이 피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의 진로도 탐색하고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들을 공유하고 다소 해소해볼 수 있었던 값졌던 시간이었습니다.

##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장애여성공감	
주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 101동 411호	
홈페이지 주소	wde.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①장애여성 인권사안과 관련된 권익옹호 및 반차별 활동 ②장애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관련 사업 ③장애여성 독립생활센터 운영 및 장애여성 독립생활지원 사업 ④장애여성 성폭력상담 및 피해자 지원과 반성폭력 활동 ⑤장애여성 관점의 문화예술운동 및 사업 ⑥장애여성 인권 관련 연구정책 활동 ⑦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장은희
	전화번호	02-441-2384
	이메일	wdc214@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GO 단체 실무 및 일상업무 지원</li> <li>● 단체 프로그램 보조 진행</li> <li>● 장애여성 회원 활동 지원</li> <li>● 장애여성 인권사안 관련 자료 정리 및 취합</li> <li>●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활동 지원</li> </ul>	
자원활동 요건	장애여성 및 소수자 인권운동을 지지하며 자원활동을 통해 장애여성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	
활동 요일 및 시간	요일 및 시간 학생과 조정 가능 (가능하다면 월요일 제외한 요일 제안하고자 함)	
요청 인원	1명, 장애학생 우선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2020년 7월 중,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학생과 소통하여 조정)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여성공감'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8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자원활동을 했습니다. 매번 수행해야 하는 주된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활동가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업무를 정해 놓으시면 제가 금요일에 가서 도와드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맡았었는데, 공감이 보관하는 외부 자료실 정리, 발달장애여성인권투쟁단 활동 보조(사진 촬영 및 회의 기록), 공감의 성교육 사업 평가 및 연말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 코딩 및 아카이빙, 타 단체 활동가 인터뷰 녹취 등을 맡았습니다. 이외에도 극단 '춤추는 허리'의 연극이나 합창단 '무지개' 공연, '장애여성학교' 졸업식 때 필요한 PPT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공감 내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2. 활동소감

우선 다양한 업무를 맡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감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으로써 늘 공감의 활동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공감 내 다양한 모임들, 그리고 공감이 연대하고 있는 더 큰 단위의 단체들과 관련된 작은 업무들을 맡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분들도 활동기간 내내 너무 따뜻하게 해주셨고, 업무를 부탁하실 때 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고맙다고 전해주시는 등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소통을 담당해주시는 분이 중간에 퇴사하시면서 업무를 전달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잠시 걱정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잘 맡아주셔서 끝까지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인권단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 내 수평적인 분위기와 업무 및 소통 방식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첫날부터 발달장애여성인권투쟁단 '만세팀'의 활동을 보조하면서 만세팀에 소속돼 있는 공감의 회원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내내 오고 가며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공감을 즐겁게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당사자분들과 가까이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공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은 이제 잘 없겠지만, 활동가분들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해서 이어갈 방법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의 활동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도와드리는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앞으로도 공감 및 장애여성인권이라는 의제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고자 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s://www.womenandwar.net/">https://www.womenandwar.net/</a>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 여성인권문제에 대한 활동 및 전시, 교육</p> <p>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p> <p>1.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p> <p>2.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입니다.</p>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이지영
	전화번호	02-392-5252/010-2385-3821
	이메일	war_women@hanmail.net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대협(정의기억연대) 활동 (수요시위, 캠페인, 사무행정)</li> <li>2.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자료실 자료입력 및 정리 수장고 업무(유물정리 및 목록화)</li> <li>3.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인포센터 - 관람방법 안내 및 뮤지엄 샵 운영 도우미</li> <li>4. 후원물품(나비팔찌)제작 지원 등</li> <li>5. 단체관람 사진 촬영 및 관련 서류 정리</li> <li>6. SNS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홍보작업</li> </ol>	
자원활동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책임감있는 자세.</li> <li>2. 본인 활동 가능 시간을 명확히 표시 요망</li> <li>3. 본인이 원래 지원한 분야 외에서의 활동 가능성 있음</li> </ol>	
활동 요일 및 시간	<p>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10시-오후18시 사이에 가능한 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소 주1회, 3시간 이상 (학생에 따라 특별한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 가능)</li> <li>2. 방학기간에는 되도록 오후 활동 가능자 지원 요망 (박물관)</li> <li>3. 요일 겹치지 않도록 지원 요망</li> </ol>	
요청 인원	5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본격적인 봉사 시작 전에 참여 학생들 일괄적으로 기본교육 및 박물관 관람 예정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의 인포메이션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나눔의 집에서 짐을 나르는 활동을 할 때도 있었고,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희망 메시지를 작성할 나비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활동은 거의 없었고, 직관적인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점심시간에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박물관 관내에 계신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시면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았습니다. 전화응대업무나 계산업무, 박물관 내 관람 방식과 지켜야 할 규율 정도만 숙지하면 봉사활동 자체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내 할 일도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분들도 박물관에 자주 관람하러 오시므로 간략한 영어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짧은 영어여도 괜찮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 2. 활동소감

활동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 비해, 느끼는 뿌듯함은 매우 큽니다. 아마 박물관의 자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감격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물관 관람 시작 전에 간단한 퀴즈도 내기도 하고, 정성스러운 박물관 설명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쩌면 인생에 살면서 한 번밖에 와보지 않을만한 분들도 박물관에 와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그렇게까지 감명깊었다기보다는 박물관의 콘텐츠가 좋아서 그런 감동을 받으셨던 거겠지만, 제가 다른 이들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가끔씩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극 혹은 영화 방청 기회를 주시므로, 박물관에 자원봉사를 다니다 보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도 덕분에 연극을 방청할 수 있었고요. 만약,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강력추천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박물관 내에 계신 팀장님들, 관장님도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세요!

**2020년도 하반기(7월~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6길 14, 3층	
홈페이지 주소	glocalactivism.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한국, 중국, 멕시코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노동, 생태환경, 여성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활동합니다. 국제 공동포럼, 세미나, 토론회, 페미니즘/액티비즘 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현장운동과의 연결, 연대활동들을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활동 분야: 여성, 환경생태, 노동, 국제</li> <li>- 주요 활동: &lt;페미니즘학교&gt;, &lt;세계 여/성 노동자대회&gt;, 국제포럼, 현장연대활동 등</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이은숙
	전화번호	010-4714-2692
	이메일	myleeus@naver.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홈페이지, SNS) 활동</li> <li>- 본 단체의 행사 기획과 실행(페미니즘학교, 국제포럼, 국제공동 학교, 집회 기획, 기타) 참여</li> <li>- 현장운동 연대활동</li> <li>- 사진 및 영상 촬영</li> <li>- 자료 조사, 아카이브</li> </ul> <p>* 자원활동 지원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p>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자원활동에 필요한 관심과 기술</li> <li>- 페미니즘과 글로컬/국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향성</li> <li>- 자신의 활동에 대한 책임성</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요일, 목요일 (페미니즘학교 운영지원 권장)</li> <li>-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중에서 4시간 선택하여 활동(권장)</li> </ul>	
요청 인원	3~5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6월24일(수) 또는 6/25일(목) 오전 시간대 (권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혹시 지원학생이 요청할 경우, 단체 자원활동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이은숙 010-4714-2692)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 1) ‘적녹보라 포럼: 노동과 생산/재생산의 전환을 고민하는 연속 간담회’ 1~8차 발제문과 속기록 아카이빙 및 정리
- 2) 여/성노동자 대회 월례토론회 3차(퀴어와 노동), 4차 참여
- 3) 제 2회 ‘여/성노동자 대회’ 참여
- 4) NGA 홈페이지 배너 디자인
- 5) 페미니즘 학교 분기별 모집요강 아카이빙

### 2. 활동소감

처음 2달간 적녹보라 포럼을 아카이빙하는 과정은 사실 저에게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적녹보라 포럼은 페미니즘, 노동운동, 퀴어운동, 환경운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발제문과 속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토론회장에 와있는 기분으로 매번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노동권, 기본소득, 공공시민노동 등 제가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들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었고, 각 운동진영끼리 부딪히게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대회 월례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매매와 관련된 입장과 상반되는 견해들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NGA와 저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회로 저는 좀 더 저의 입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고,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세계 여/성노동자 대회의 구성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활동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NGA의 취지와 설립 과정, 활동에서의 보람과 어려움, 세계 여/성노동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적녹보라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제가 몰랐던 문제들을 접하고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인권센터의 이 자원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b>재단법인 진실의 힘</b>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성공회빌딩 3층 (시청역 근처)	
홈페이지 주소	www.truthfoundation.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진실의 힘은 7-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의 고문 끝에 허위 자백과 불공정한 재판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진 피해자 중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성공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의 시작부터 함께한 인권활동가, 변호사, 통증 전문의, 정신과 의사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지원사업(&lt;세월호, 그날의 기록&gt; 등 출판)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재활,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와 재활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중 캠페인, 유엔 고문방지조약 이행감시활동, 아시아 인권침해 피해자 연대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p>	
자원활동 담당자	이 름	이사랑
	전화번호	02-741-6260 010-2007-7039
	이 메 일	<a href="mailto:truthfoundation@hanmail.net">truthfoundation@hanmail.net</a> <a href="mailto:sarang@truthfoundation.or.kr">sarang@truthfoundation.or.kr</a>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억의 루트' 준비   '기억의 루트'는 과거 국가폭력의 장소이지만 현재는 그 흔적을 지운 장소들(남산 안기부터, 소격동 구 보안사, 민간인 학살지 등)을 국가폭력 생존자와 시민이 함께 찾아가는 워킹 투어 프로그램. 인물/장소별 자료 수집, 정리, 기억의 루트 지도 제작, 홍보 및 행사 후 데이터(녹취, 사진 등) 정리. 외국인 프로그램 진행 준비 등</li> <li>■ 남산 안기부, 사북항쟁 고문 실태조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기부 고문실태 조사   독재정치의 고문과 폭압 정치의 상징인 남산 안기부 기록을 묶어 내고 재판 기록 및 증언 진술, 고소 고발장, 각종 성명서, 단행본 및 언론 보도를 토대로 고문 피해자 명단을 작성.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이 고문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 폭력 이후의 삶 등을 보여주고자 함.</li> <li>관련 업무: 연구 리서치,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작성, 문서 편집, 영상 기록 등</li> <li>② 사북항쟁 고문 실태조사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대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일대에서 탄광 노동자와 가족 등 6000여명이 일으킨 총파업 사건. 극악의 노동환경, 임금 소폭 인상, 어용노조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유혈사태로 번져 나</li> </ul> </li> </ul>	

	<p>갔음. 사태가 진정되자 신군부는 항쟁 주동자 및 가족들을 불법 연행해 구타, 고문을 자행. 진실의 힘은 단순한 고문실태 조사를 넘어서 '피해자'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불리던 이들의 삶과 투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함. 사북항쟁은 1980년대 신군부 저항과 노동운동의 중대한 출발점이자, 한 달 후 광주 5.18의 전주곡으로,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역사 중 하나.</p> <p>관련 업무   연구 리서치,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작성, 문서 편집, 영상 기록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국가폭력 및 제도적 폭력,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담론 관련 자료 및 논문 정리</li> <li>■ 아시아 인권이슈 시기별/쟁점별 DB 구축을 위한 자료 축적</li> <li>■ 타학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재심 등 소규모 스터디 참석</li> <li>■ 2020년 하반기 진실의 힘 행사 및 강연 참석</li> </ul>
<p>자원활동 요건</p>	<p>국가폭력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삶에 공감하며, 한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영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국제 담론, 아시아 이슈 리서치를 위해서는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만 필수는 아닙니다. 진실의 힘 활동을 함께 하고, 같이 배우면서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활동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p>
<p>활동 요일 및 시간</p>	<p>일주일에 하루, 한 번에 3~4시간 이상 꾸준히 출근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금요일을 선호하는데, 일정 조율도 가능합니다.</p>
<p>요청 인원</p>	<p>3~4명</p>
<p>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p>	<p>7월 첫째 주로 일정 논의 가능</p>
<p>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p>	<p>-</p>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진실의힘'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저는 여름방학, 2학기 중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 10시 30분 ~ 5시 30분 봉사를 했습니다. 시간이나 요일은 선생님들께서 유동적으로 변경을 허락해주시기도 했습니다.

#### 1. 남영동 대공분실 가해자 파일 제작

- 2학기 들어와서 특히 많이 했고, 봉사활동 기간 내에 이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진실의 힘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피해자 리스트를 정리했다면, 올해에는 가해자를 정리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가해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더욱 숨기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실의 힘에서는 가해자 리스트를 만들었고, 저는 그것을 도와 당시 진술서, 재판 조서,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가해자 신상 정보를 찾고 정리했습니다. 직위, 가해자 간의 관계, 사건 이전과 이후 행적 등 그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을 도왔습니다. 전체 내용을 퇴고하고, 연표 제작 등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 진술서나 재판 조서 등을 읽으며 당시 어떤 과정으로 간첩으로 조작되고, 남영동 대공분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소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그 이후의 행적을 통해 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더욱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2. 녹취록 정리

- 피해자분들의 녹취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인권기념관에 사용될 용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녹취록이 속기되어 있는 걸 다시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기하는 것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녹취된 파일을 그대로 속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지만,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어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 3. 국가폭력 관련 기사 및 해외 자료 수집

- 진실의 힘은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 국가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최승우, 한종선 님)의 단식, 고공 농성에 대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인권상을 리서치하고 자료를 리뉴얼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실의 힘 인권상을 받았던 우원틴 재단과 관련된 해외 기사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특보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해 70~80년대 간첩 조작 고문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문제들에 대해 더욱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 4. 진실의 힘 송년회 및 서승 강연 참여

- 12월 16일 월요일에 진실의 힘 송년회에 참여하여 진행을 도왔습니다. 지난 1년간 했던 일들

을 함께 정리해보면서 제 봉사활동 6개월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글로만 만나고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던 피해자분들과 관련 활동가분들을 만나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축하, 격려, 슬픔을 나누는 과정에서 얻었던 따뜻한 분위기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도란도란’을 연령, 성별, 상황, 경험에 관계없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9월 중순에는 진실의 힘 서승 선생님의 <한일 갈등의 뿌리와 열개: 아베의 약속은 무엇인가> 강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작성한 소감문이 진실의 힘 뉴스레터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재일교포 서승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며 한일 관계 및 관련 국제적 관계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진실의 힘 봉사활동에서 서승 선생님의 강연 녹취록을 정리하고 소감문을 작성하며 다시 한번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5. 뉴스레터 인터뷰

- 함께 봉사했던 분들이랑 자원봉사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의 힘 뉴스레터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이 있어 더욱 소중했습니다.

## 2. 활동소감

저는 제 2019년을 돌아보았을 때, 진실의 힘에서 봉사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진심으로요...! 활동가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디가서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진실의 힘에서는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간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함으로써 인턴처럼 일을 해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고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국가폭력 사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몰랐던 사실이나 상황을 앎으로써 전 세계 국가폭력 관련 인권 현황에 대해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기술했던 다양한 활동은 저의 성장에 정말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진실의 힘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간사님들, 이사님과 점심을 먹으며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함께 점심을 먹으며 어떤 인권단체가 있는지, 어떤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듣기도 하며 국가폭력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제 고민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 진심이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표현되지 않을 만큼 값진 경험을 지난 6개월간 했고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진실의 힘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할 계획입니다. 사실 봉사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얻은 것이 더욱 많아, 현장에 대한 공부와 배움, 인턴과 같은 경험을 하고 온 기분입니다. 저의 2학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진실의 힘,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www.workingvoice.net">http://www.workingvoice.net</a>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p>「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과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비정규노동자의 증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음. 비정규노동자의 문제는 인권문제이자 노동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임.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문가위원으로 활동</li> <li>-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심의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활동</li> <li>- 일자리위원회 비정규대표 위원으로 활동</li> <li>- 최저임금위원회 비정규대표로 노동자위원으로 활동(2015년~ )</li> <li>- 파리바게뜨 비정규직노동자 직접고용 시민대책위원회 활동</li> <li>-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연대</li> <li>- 케이블통신노동자 매각투쟁에 연대</li> <li>-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대표로 활동</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배병길
	전화번호	010 2822 6234
	이 메 일	<a href="mailto:ilecdw@naver.com">ilecdw@naver.com</a>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 : 인터뷰, 코딩, 통계프로그램(SPSS) 분석, 녹취 등 연구보조</li> <li>2) 현장 활동 : 투쟁 현장 방문, 노동 관련 단체(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감정노동센터) 방문 등</li> <li>3) 글쓰기 : 격월간 잡지 '비정규노동', 카드뉴스, 센터 성명 글쓰기</li> <li>4) 학습 : 비정규 이슈 공부 모임, 비정규동향(노동 관련 뉴스) 정리</li> <li>5) 프로그램 기획 : 자원 활동가 기획 프로그램</li> <li>6) 기타 : 주간회의, 월례회의, 각종 행사 및 교류 참석</li> </o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노동에 대한 관심</li> <li>- 성실성</li> <li>- 적극성(궁금한 내용, 아이디어 등)</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 학생들과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요청 인원	- 2명~4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교육일정과 이후 활동 일정은 학생들과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비정규노동 운동,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흥미롭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노동 관련 기사를 매주 리서치하고 노동 관련 이슈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비정규노동을 키워드로 하여 간접고용, 특수고용,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기사를 정리해서 주간회의에서 브리핑했습니다. 카드뉴스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요양 보호사 등 당시의 이슈를 하나씩 선정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위탁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센터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진행한 면접조사의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코딩 작업을 도왔습니다.

### 2. 활동소감

이전에는 잘 접해보지 못했던 비정규노동이라는 이슈에 대해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 초반에 비정규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관련 주요 사건들이나 비정규노동의 개념과 유형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고 기사를 리서치하면서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 카드뉴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해당 주제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을 할 때 상근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홈페이지 주소	http://www.sisters.or.kr/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활동(역량강화, 의료, 법률, 기타)</li> <li>-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 운영</li> <li>- 성폭력 관련 대중 및 전문가 대상 교육 진행, 관련 연구 및 간행물 출판</li> <li>- 젠더폭력 대책위 및 의제 캠페인 활동</li> <li>- 성폭력피해생존자, 여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감시 및 제언</li> </ul>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전혜영
	전화번호	02-338-2890
	이메일	wmagnolia.ksvrc@gmail.com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활동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주요 관심사/역량과 조정하여 세부업무 선정 (예시 업무 : 성폭력 관련 토론회, 행사 등 참석, 리뷰 작성, 언론에 난 성폭력 관련 기사 통계 및 분류, 문서정리, 아카이빙, 기타 제작단체운영에 필요한 보조업무 등)</li> <li>- 제시된 업무 외 자원활동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담소 업무가 있을 경우,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li> </ul>	
자원활동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 섹슈얼리티, 차별과 폭력 문제에 관심있고</li> <li>- 향후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해보고 싶은 분 우대</li> <li>- 본인만의 어떤 역량, 기술이 있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는 분</li> </ul>	
활동 요일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금요일 10:00-17:00</li> <li>- 시간 외 근무 시, 상근활동가 활동규정에 따라 대체휴가 등 발생</li> </ul>	
요청 인원	1-2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전체 활동가와 인사 나눔 및 팀별 활동 내용 소개,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준하여 상담소 활동 중 알게 된 성폭력 피해생존자 관련 정보는 일체 엄금을 당부합니다.</li> <li>- 행정업무가 주가 되지는 않겠으나 이 역시 단체활동에 필요한 고유업무 중 하나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li> </ul>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상담소에서 했던 업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1. 복기 및 자료 정리

- 상담소의 경우에 활동가분들이 정말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수합하고는 하시는데요, 자원활동을 하게 될 경우 때로 녹취를 풀거나, 자료를 문서로 정리하거나 하는 간단한 업무를 맡습니다.

#### 2. 행사 기획

- 자원활동가라고 해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주변적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가분들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체적으로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행사 기획에서도 정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는 했습니다.

- 행사 기획의 경우 저는 디자인을 할 줄 알아서 사무업무(장소 대관, 견적서 작성, 각종 서칭)부터 ppt디자인, 포토월/포스터/웹자보 디자인 등을 했고, 위에서도 말했듯 함께 회의에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행사에서 어떤 코너들을 진행할지 내용이나 방식은 어떤 것이 좋을지 등을 논의하며 함께 행사를 꾸릴 수 있습니다.

- 함께 진행했던 행사로는 성폭력상담소 텀블벅, 후원의 밤 행사, 페미시국광장, 한 해 보내기(송년회, 올해는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진행되었답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 3. 외 자원활동

- 2019년의 경우 페미시국광장 스태프로 참여했었는데, 이처럼 하반기 행사에서 정기 업무일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참여가 상당 자율적이라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회, 행사, 모임, 송년회 등에 즐겁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 2. 활동소감

개인적으로 상담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하기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 활동 소감을 정리하자면 아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 1. 보다 주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위에서도 말했듯 활동가분들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체적으로 대해주시고 세심한 것 하나하나 다 신경써주세요. 평등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행사부터 자료 정리나 연구관련 등 활동가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 2. 학교를 벗어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 물론 자원활동가가 직접 상담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서 한국에서 성폭력의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늘 학교 안에서만 인권 활동을 하던 것이 답답하고 한계적으로 느껴져서 상담소에  
서의 자원활동을 시작했었는데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이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자원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인권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상담소와의 논의를 통해 자원활동을 계속할지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이 일주일에 하루를 꼬박 쓰는 거라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오히려 뻑  
뻑한 한 주에 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  
어서 오히려 성취감이 더 큼니다. 그리고 개인적 시간이나 사정을 잘 경청하고 반영해주는 공간  
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학교를 다니면서는 어떤 집회에 가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상담소가 있어서 더 많이 접하고, 시험기간이 있는 팍팍한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한 학기  
동안 계속 여성인권에 대해 고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활동  
을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7~12월) 인권단체 자원활동 프로그램  
단체 소개 및 대학생 자원 활동 참여 안내문**

인권단체 이름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27-1 코콤빌딩 2층	
홈페이지 주소	www.wmigrant.org	
주요 인권 분야 및 활동	1) 이주여성 인권 증진 활동 2)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3) 소풍, 송년회, 문화체험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교육 등 이주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운영 5) 이주여성 인권 보호 캠페인	
자원활동 담당자	이름	한가은
	전화번호	02)3672-8988
	이메일	wmigrant@wmigrant.org
자원활동 상세내용 (학생이 할 자원활동 내용)	1) 이주여성 인권 지원 활동 2)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지원 3) 한부모 이주여성과 자녀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정착 프로그램 지원 4)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교육 등 이주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보조 5) 국제결혼중개업 이주여성 성상품화 모니터링 활동 6) 이주여성 인권 보호 캠페인	
자원활동 요건	1) 여성에 한함 (여성 피해 보호시설 지원 포함하고 있음) 2) 1주 1회 4시간 이상 가능하신 분	
활동 요일 및 시간	* 평일 (월-금)에 한함. 시간과 요일은 조정 가능.	
요청 인원	1명	
자원활동가에 대한 단체 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첫날 권장)	2020. 7. 1 오전 11시(변경 가능)	
기타 요청 사항 (사전 면접 여부 등)		

## <2019년 학생-인권단체 연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의 후기입니다>

### 1. 활동내용

OT 때에는 몸쓰는일부터 간단한 메일보내기, 비품 구매하기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소개해주셨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센터의 주력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임시 활동가들은 간단하게 회계 장부를 정리하거나 송년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걸려오는 전화들을 응대하는 것 외에는 주로 인터뷰한 음성 자료를 문서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평일 10시~2시, 2시~6시 중 한 타임을 골라서 활동하게 되는데, 오전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요리를 해서 점심을 해결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실질적인 인권단체들의 현황이나 활동 사항, 현실적인 장벽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 보다는 대학생 수준에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는 편입니다. 일정 기간 활동하다보면 매주 있는 회의 시간에도 회의록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서 참석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그림도 알 수 있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2. 활동소감

이주여성들의 실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다는 동기에서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그분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들을 간접적인 인터뷰 자료로나마 접하다보니 때로는 분노가 생기기도,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비록 교환학생 탓에 연속해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내년에도 인권단체 연계활동 프로그램에 이주여성인권센터가 포함된다면 꼭 한번 다시 일해보고 싶습니다.